

제주지역혁신플랫폼 (RIS) 대학교육혁신본부

2023년 마을 아이돌봄 네트워크 모델개발 사업 자료집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백신을 개발한 과학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냐고 질문했더니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나의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돌봄을 필요로하는 가족구성원을 누군가 돌봐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실험실에서 백신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백신으로 온인류가 안도했다.

돌봄은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와도 같다. 돌봄은, 마치 나무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부재하면 전체의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돌봄은 우리사회의 버팀목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돌봄은 가족과 친족으로 구성된 돌봄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는데, 주지하다시피 이 공동체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반면에 아동,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우리 사회의 돌봄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임시방편으로 요양보호사 숫자를 늘리고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저녁늦게까지 돌보는 서비스를 확장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관주도의 서비스공급 방식은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노동시간의 단축, 실질임금의 상승 등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서로돌봄을 촉진하는 촉매제도 필요해보인다.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리빙랩팀은 먼저 아동돌봄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며 주민 스스로의 강점을 살리는 돌봄네트워크 형성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목차

들어가며

1. 왜 아동돌봄 네트워크인가
2. 우리 ‘지역’은 어디인가
3. 우리지역 욕구와 자원파악하기
4. 아동돌봄 네트워크 모델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
5. 마을에서 주민과 생생한 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
6. 아동돌봄 네트워크 상상하기

1. 왜 아동돌봄 네트워크인가?

먼저, 기존의 마을 아동돌봄 네트워크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했다.

최근 돌봄수요가 늘어나면서 돌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돌봄의 필요성을 더욱 확고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논의는 더욱 뜨거워졌다. 커뮤니티 케어, 온마을돌봄 등의 이름으로 지역에서 소규모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돌봄을 제공하자는 ‘마을돌봄’이 공립학교나 요양병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대단위 관주도의 돌봄(예: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김송이, 황선영, 2021). 마을돌봄을 활용한 아동돌봄의 대표적 예로는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이 있다.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근접한 센터에서 방과후와 방학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과도 연계하면서 서비스를 조정한다. 대체로 학기중에는 저녁8시, 방학중에는 저녁6시까지 센터에서 포함한 아동돌봄을 제공하는 센터라는 **공간 중심의 지역 아동돌봄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다함께돌봄센터처럼 공간중심의 모델은 양육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이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돌봄노동자의 과중한 업무 등의 해결과제가 남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송이, 황선영, 2021).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3
다함께돌봄사업안내의 겉표지.
300페이지가 넘는 이 안내서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립과 운영지침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공간중심의 아동돌봄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용자격에 제한이 있어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는 아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우선 지원 대상 기준을 폐지했지만 초등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에 돌봄이 더 본격적으로 필요한 어린 아동은 활용하지 못한다 (홍현균, 공정승, 2022).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만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형 돌봄모델**이고 이 역시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제주지역의 아동돌봄 네트워크 모델개발에 관심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제주도의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높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제주(6.57%)는 전국평균(5.02%)보다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이어 네 번째로 발견율이 높다.

아동학대의 경우 양육자의 잘못된 인식, 양육기술문제, 가정경제적 요인, 지역사회에 폭력에 대한 허용수준,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 그래서 특히 양육자가 자녀돌봄관련하여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Calvano, Engelke, Holl-Etten, Renneberg & Winter 2023) 지역사회공동체가 아동돌봄에 관여할 때 그 부담을 나누어 짐으로써 많은 학대사례들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제주복지넷, 2022),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의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하는 선별적 서비스이고 지역사회 통합, 지역사회 역량강화,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다. 우리가 조사할 노형동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와 복지관이 없으며, 지역아동센터만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누구나 활용하기는 어렵다.

제주시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정에게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김태한 팀장과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공식적 자원(드림스타트,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심리치료 기관 등)과 비공식적 자원(친인척, 지인, 이웃주민 등)을 활용하여 아동이 안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모니터링한다고 한다. 또, 자원이 있는 상황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있는데, 양육자들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돋아주어야 하며, 양육자의 정신건강도 도모해야 한다고 한다.

학대발생 위험도가 높은 가정, 위기가정은 아동돌봄 서비스에 연결되면 역량이 강화될까?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아동을 학대한 양육자는 심리치료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수동적,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들로 설정하는 것은 아닐까?
서비스가 당사자의 진정한 역량 강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것 아닌가?
수혜대상자에서 능동적 참여자, 사용자, 제공자로 바라볼 순 없을까?

“한 아이를 돌보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나의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부모의 24시간 아이돌봄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

한 가정에만 자라는 것이 아닌 것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수 없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함께 돌봄

함께 키워요

다같이 가르침을 받는 것

품앗이

추렴 공동체

돌봄의 연대가 필요함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사회로 나가는 첫 걸음

서로 도와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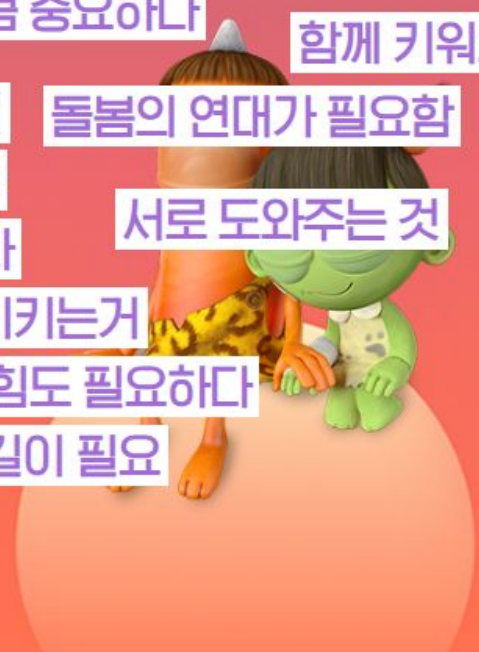
이웃사촌

서로의 집을 나누어 지자

같이 도와주면서 아이를 성장시키는거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도 필요하다

아이돌봄은 이웃의 따뜻한 눈길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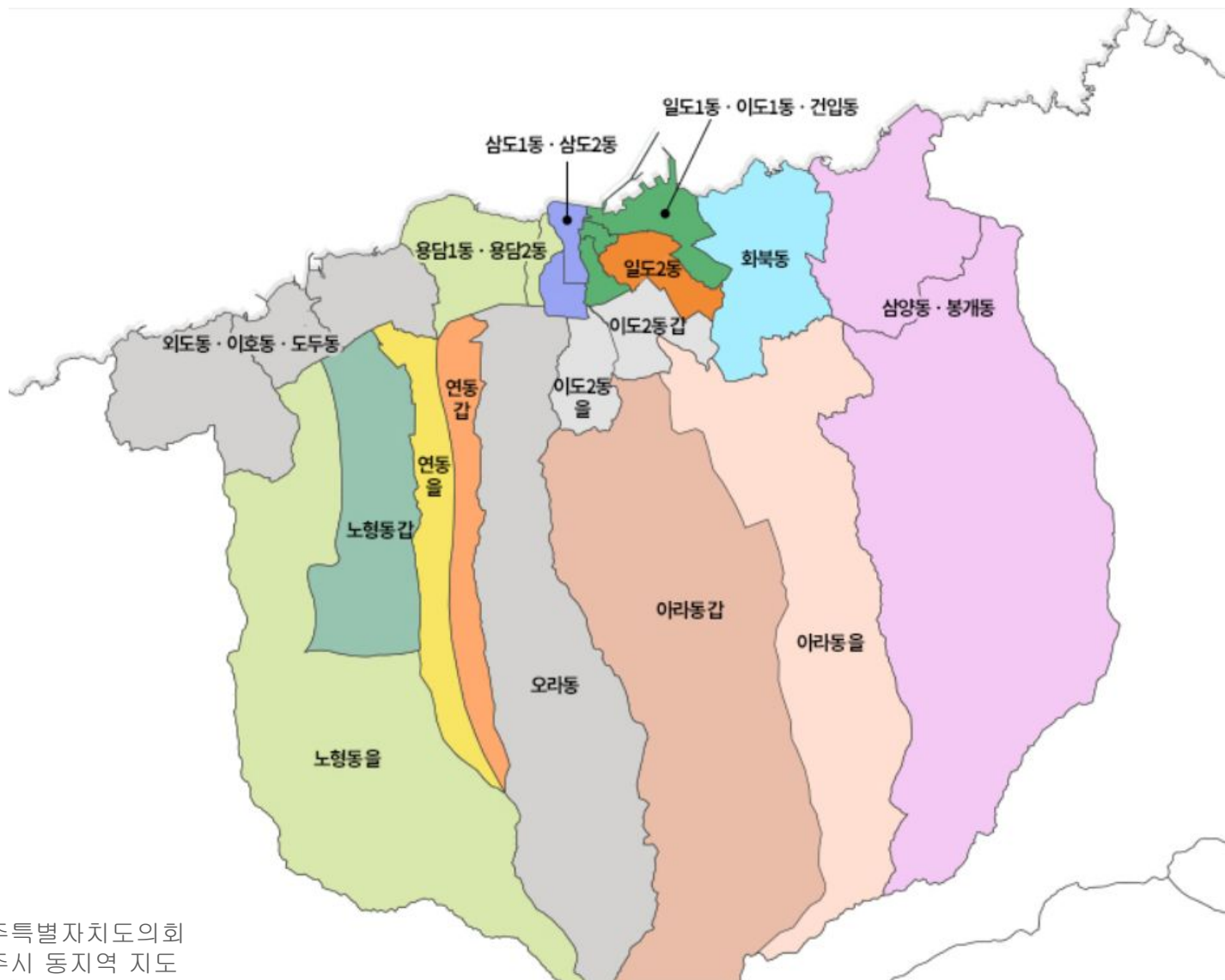
마을의 아동돌봄 네트워크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한 아이를 돌보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나름대로 되새겨 보았다. 아동돌봄에 지역사회 돌봄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은 아동돌봄을 위해 연대하는데, 이 연대의 핵심은 모두가 기여하면서도 모두의 삶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아동돌봄만을 직접 제공하는 네트워크는 개방적이지 않다. 일례로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던 사람은 이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모두가 나름의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돌봄 뿐 아니라 어르신돌봄, 펫돌봄, 식물돌봄, 악기교습, 언어교습, 가사 도움 등 다른 일로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 우리 ‘지역’은 어디인가

우리의 지역은 바로 ‘노형동’이다.

우리가 ‘노형동’을 선택한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이하 아보전)이 ‘노형동’에 위치해있고, 또한 우리팀의 주요 터전인 제주한라대학교가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형동’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돌봄 네트워크 모델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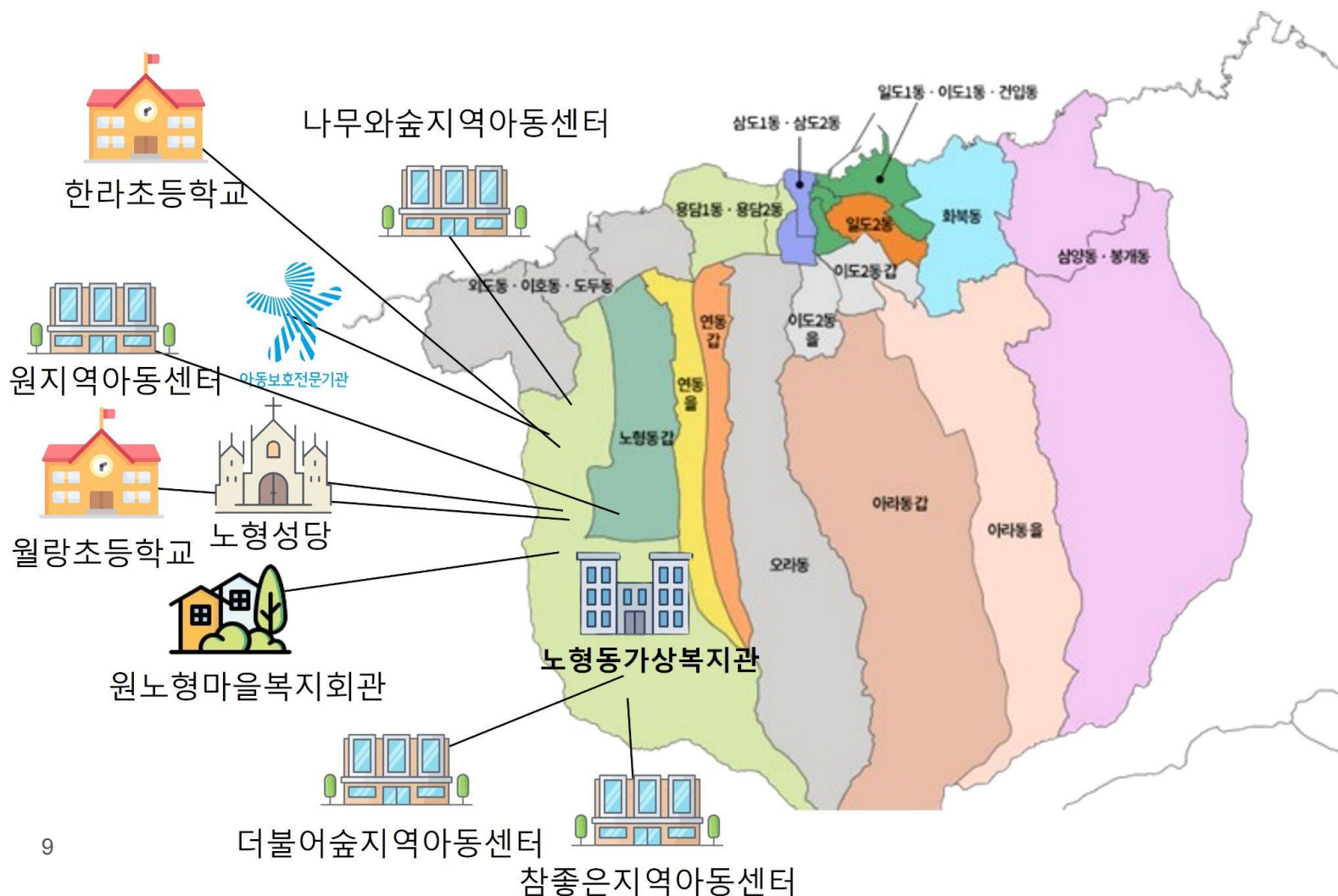
3. 우리지역 욕구와 자원 파악하기

아이돌봄 네트워크 모델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전, 노형동에 위치한 원노형복지마을복지회관에서 노인회를 대상으로 마을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노형동 주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 부족,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부족했으며, 외부인이나 젊은 세대들이 노인회를 통해 노형동 주민들과 소통하거나, 노인회가 아니더라도 주민 간 소통이 더 활발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 노형동에 있는 주요 자원과 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자원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종교기관, 복지관, 복지회관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래 사진은 노형동에 위치한 주요 자원과 기관의 사진이다.



노형동에 위치한 주요 자원과 기관으로 우리가 파악한 곳은 총 10곳으로, 초등학교 2곳, 종교기관 1곳, 지역아동센터 4곳, 마을복지회관 1곳, 가상복지관 1곳, 아동복지시설 1곳이다.

초등학교	- 한라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화로 42 - 월량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63
종교기관	- 노형성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평동로 37
지역아동센터	- 나무와숲지역아동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량북길 30-5 - 원지역아동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5길 7 -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774-1 - 참좋은지역아동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4길 25
마을회관	- 원노형마을복지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2길 33-6
복지관	- 제주스마트복지관, 이 복지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복지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동사무소처럼 건물은 사무실 기능만 하는 기관이기에 주소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아동복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

노형동에는 대표적인 아동돌봄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와 종합복지관은 부재하다. 초등학교 학부모회, 조기축구회, 작은 도서관, 학원연합회 등 기존 주민모임이나 조직도 마을의 아이돌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만한 잠재적 자원이기 때문에 추후 파악이 필요하다..



4. 아동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

리빙랩(Living Lab)이란 “살아있는 연구실” 혹은 “생활연구소”로 불리며, 사용자나 지역주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주체로 참여하면서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이자 공간이다.

이러한 리빙랩의 특성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자원과 지역주민을 통하여 제주의 사회적 문제인 아동학대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민주도의 돌봄 시스템은 아동뿐만이 아닌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리빙랩이 우리가 기획하는 아동돌봄 네트워크 모델과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리빙랩의 성공적인 사례인 성대골 에너지리빙랩을 벤치마킹 하러 가게 되었다.



(옆)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 리빙랩의 시작과 발전에 대해 듣고있다. 마을을 견학하며 당시 상황과 리빙랩 적용방식을 벤치마킹 중이다.

리빙랩을 아동돌봄 네트워크 모델에 적용시키기 위해 성대골 에너지리빙랩의 담장자이신 김소영 대표님과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김소영 대표님과 자문회의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리빙랩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민간 주도성** : 리빙랩은 사용자나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이기에 민간이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움직여야한다. 이러한 민간 주도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코어 그룹을 찾고 코어 그룹 및 지역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 **목적성(비전)** : 리빙랩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이기에 확실한 목적(비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키워드를 제시해 계속해서 목적을 상기시켜야한다. 이러한 목적성을 확실하게 세운다면 리빙랩에 참여를 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고 참여율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전환문화** :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고 리빙랩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 그렇기에 마을의 문화를 파악하고 그 환경에 맞게 문화를 전환시켜야 한다.
- **다방법적 접근** : 리빙랩은 중간과업이나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역주민들이 현재 문제라고 느끼는 것을 지역주민들과 논의하고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옆)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김소영대표.
지역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면서
주민을 만나고 소통하고 챙긴다. 리빙랩
사업을 계획한다면, 주민과의 대면시간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리빙랩의 요점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지역인 노형동에 아동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면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나타났다.

실제로 성대골 에너지 전환마을 리빙랩의 김소영 대표님 또한 오랫동안 거주하신 지역주민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작시 지역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7개월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다. 또한 공모전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성대골 작은 도서관을 통한 지역자원이 있었다.

현재 우리는 노형동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외지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되며, 빠른 시간내에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네트워크에 사회적 문제와 목적(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워크숍, 교육 및 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굉장히 한정적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본문5(마을에서 주민과 생생한 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 본문6(마을 아동돌봄 네트워크 상상하기)을 기획하기로 했다.

(아래)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빈티지
느낌의 소박하고 따뜻한 골목책방이다.
전혀 화려하지 않은 외관과 아늑하고
아기자기한 실내가 사람들을 묘하게
끌어들인다



(위)성대골 주민이 마을입구에 직접 그린 마을지도
벽화. 경로당, 어린이도서관, 패밀리센터,
에너지학교, 어린이집, 공원, 성당, 교회, 절 등
리빙랩사업의 핵심지점들 위주로 제작되었다



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 리빙랩 벤치마킹을 마무리하며, 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 리빙랩이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던 요인을 논의하였고, 아래의 사진과 같은 키워드들이 나왔다.
이런 키워드를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노형동이라는 마을에 녹아들고, 어떻게 아동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리빙랩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목적(비전)을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해 노형동 안에서 아동돌봄을 위한 파장을 일으킬 것 인지에 대해 기획해보았다.

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
리빙랩사업의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김대표님의 소통
충분한 주민들의 이해
지역특성 파악
일관된 태도
주기적인 관심
시간
자발적 참여
문제의식 공유
관심도
수용
재미
주도
특정대상 한계를 정해두지 않음
키워드
냉정함
친밀함
합리성
지속되는 참여
MOU
대상자X 당사자 마인드
갈등초월
협업체
니즈파악
교육
목적성
복지...??
충분한 조사
파악 회피X
데이터베이스
유기적인 생산과 소멸
접근성
전환문화
다양한 나이대
갈등에 대한 두려움 X
편안함
터줏대감 끌어들이기
관심분야의 지속적인 확장
많은 토론
아이디어뱅크
인내심
한계에 멈추지 않음
꾸준함
회의
워크숍
기다림
비전
문화
동기부여
관심있는 내용

5.마을에서 주민과 생생한 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

아동돌봄 네트워크 모델 구축을 위한 리빙랩을 하기에 앞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자원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가. 마을의 ‘빅마우스’를 중심으로 관계망을 넓혀라.

시민주도형 리빙랩 우수사례로 꼽히는 ‘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의 김소영 대표님께서서는 마을 주민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앞서 ‘마을의 빅마우스를 찾아라’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빅마우스’란 마을에서 입김이 세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예를 들어 이장, 통장 등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대표님께서 에너지전환마을 리빙랩을 시작하는 데에 앞서 먼저 하신 일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빅마우스를 찾아다니고 그들과 먼저 소통을 시작하신 것이며, 이후 그들을 중심으로 점차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망을 넓혀가셨다고 한다.

사전조사를 통해 알게 된 바로, 노형동은 지역토박이보다 외지인의 비율이 더 많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사이 관계망 중심에 있는 빅마우스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물었고, 이들은 마을회의를 주도하는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간부들을 마을의 ‘빅마우스’로 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을의 간부들과의 소통을 우선으로, 그들이 가진 욕구를 파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쏟아야 한다. 사실상 마을 주민에게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마을 아동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바로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성공적인 시민주도형 리빙랩을 위해서는 마을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난 후 그들의 욕구가 얼마나,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을 설득해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마을의 빅마우스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돌봄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공유되었다면,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망을 넓혀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리빙랩을 주도하는 이들이 마을 주민이 되어야 하는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는 것도 마을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맨 처음 소통할 때부터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쉽고 친근한 주민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후 어느 정도 핵심그룹(리빙랩을 주도할 마을 주민들)이 형성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더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리빙랩의 다섯 가지 필수 요소

1. 능동적 사용자의 참여: 사용자가 혁신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2. 실제 생활에서의 구성: 현장에서 실험하고 시도한다
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술자, 서비스 제공자, 폭넓은 기관의 행위자, 전문가, 거주하는 사용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4. 다양한 방법론 활용: 민속지학, 심리학, 사회학, 경영전략,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도구를 활용한다
5. 공동 창조: 다양한 이해관계자 군과의 디자인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함께 만들어간다

이 다섯 가지 외에도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데이터 기술의 활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

(출처: 윤찬영, 리빙랩이란 무엇인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옆) 리빙랩 성공요인은 무엇인지 고민중인 우리팀

나. 마을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라

‘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이 성공요인 중 하나는 바로 문화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김소영 대표님께서서는 성대골 리빙랩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을에 문화가 있는가?’,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나가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것인가?’, ‘에너지도 운동이나 캠페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정착시킬 수는 없나?’ 등의 고민을 거쳐 마을의 전환 문화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셨다. 이후 성대골의 전환문화는 성대골 마을 에너지축제, 에너지슈퍼마켓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마을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서로 모일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히게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문화적 접근은 워크숍과 교육(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외), 정기적 모임, 각종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돌봄 네트워크 모델 구축’도 사실상 과거에 있었던 제주의 ‘삼촌 문화(제주의 공동체 문화, 권당 문화로도 불림)’를 되살려 마을 내 서로 돌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과 동일하다. 허나, 오늘날 노형동은 서로를 돌보는 커녕, 서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조차 없으며,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학부모들은 근처 카페에서, 아이들은 학원에서 보내는 것이 일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자체적으로 나온 아이디어들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든 물어보삼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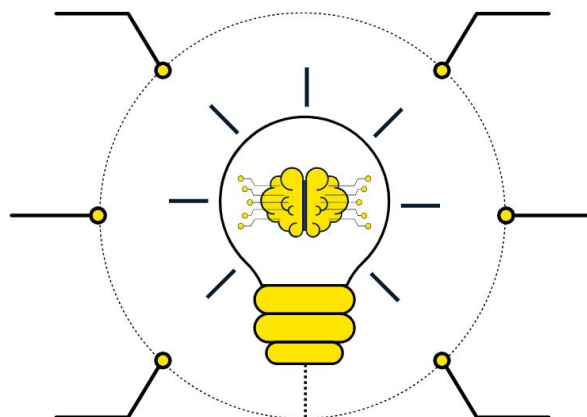
TV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처럼
마을 주민들이 서로의 사연을 나누는 프로그램
(월 2회 정도 진행)

찾아가는 노형 인심(人心)점빵

노형의 주민들의 고민을 운세뽑기, 포춘쿠키 등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주가는 마트, 카페 앞에서 운영
뽑기 키트의 모든 답변은 마을 주민들이 작성한 것이며,
추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주민끼리 연결

노형 인심(人心)점빵

실제 공간을 가지고 운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서비스(청소, 돌봄 등) 등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곳으로, 노형만의 작은 상점 느낌



노형 온세대 화투(花鬪) 대회

할머니, 할아버지께 배우는 화투 프로그램 운영
이후, 마을 내에서 온세대 화투대회를 운영하여
세대 통합의 장 마련

마을 대항 체육대회

나이대별로 종목을 달리해서
마을 대 마을로 연 1회 체육대회 진행
ex) 노형동 vs 연동 체육대회

클래스 NO.1

교육을 위한 모임으로, 리빙랩 과 관련한 교육 외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보드게임, 스마트폰 교육 등의
클래스를 열어 정기적으로 운영



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를 공유하라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의 사례를 통해 느낀 건 주민주도형 리빙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대골의 주요 키워드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이다. 처음에 김소영 대표님께서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과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주민들은 본인과 상관없는 먼 미래 얘기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표님께서는 이에 대해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서 마을 내 기후위기에 취약한 이들(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셨다.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들이 먼 나라,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마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움직이게 되었으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김소영 대표님께서 리빙랩이 실행되고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에 대해 ‘주민들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활동한 이후’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마음을 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내부적 논의를 통해 돌봄, 인식, 고립 등 다양한 키워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나, 특정한 키워드를 정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리빙랩의 최종 목표는 ‘학대 아동을 위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이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을 내 돌봄 네트워크 구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돌봄’은 대중적인 키워드로 보기 어렵고, 돌봄을 필요하는 자와 필요하지 않은 자로 구분되어져 주민들 전체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리빙랩의 핵심 키워드는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키워드는 단순히 ‘한 단어’라기 보다는 스토리가 담긴, 모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이며, 이 키워드에 따라 리빙랩의 목적과 방향, 주민들의 참여도 등이 영향을 받기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돌봄’을 핵심 키워드로 택했다고 가정한다면, 돌봄없는 마을이 지닌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주민들에게 공유함과 동시에, 마을 내 돌봄 네트워크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다른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 공동이 얻을 수 있는 이득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추가로 돌봄을 위해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작은 행위들을 해볼 기회를 제공한다면, 누구나 마음 한 구석에 품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를 자극함과 동시에 작은 행위들로부터 오는 성취감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벤치마킹을 통해 생긴 질문; 느슨한 공동체 vs 가까운 공동체

돌봄공동체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동체내의 친밀도가 높고 상호작용이 활발하며 가족같은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개인의 공간을 즐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명한 경계를 선호하는 현대인에게 전통적인 공동체는 부담스러우면서 선뜻 참여하기가 꺼려지는 거리낌을 자아낸다. 공동체로 연대하면서 발생하는 힘과 구성원들 모두의 이익도모라는 특성을 보유하면서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힘껏 도울 때 돕더라도 금방 느슨해질 수 있는 탄력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돌봄 공동체는 어떤 모양일까? 참여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으면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도 느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6. 마을 아동돌봄 네트워크 상상하기

마을마다 그 마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아동돌봄네트워크를 마을 주민 주도로 구축한다면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마을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그 마을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장을 실제로 마련하여 주민간 논의를 거듭하는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아동돌봄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1차 사업에서는 개념적으로나마 마을의 아동돌봄 네트워크 모델을 상상해봄으로써 실제 리빙랩을 활용하여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을 대신하고자 한다. 리빙랩 사업의 재정이 마련되고 2차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역 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도모하고 그 참여를 바탕으로 함께 모델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아동돌봄 네트워크는 장소를 거점으로 하는 공간 중심형일 수도 있고 아이돌보미 사업처럼 가정방문형일 수도 있다. 우리가 노형동에 구축을 시도하는 모델은 온라인플랫폼형으로 ‘당근’마켓을 벤치마킹하였다.

‘당근’은 사용자가 자신의 동네에서 물품을 사고파는 지역기반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사용자들이 서로의 물품을 사고팔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누구나 다양한 카테고리의 물품을 거래할 수 있어, 사용자의 선택지를 넓혀주고 사용자 인증 절차와 거래 후기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이미 성공한 모델인 ‘당근’의 이러한 장점들을 아동돌봄 네트워크의 온라인플랫폼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시켜보고자 하였다.

 당근

중고거래

동네업체

알바

부동산 직거래

중고차 직거래

물품이나 동네를 검색해보세요

채팅하기

당신 근처의 지역 생활 커뮤니티

동네라서 가능한 모든 것
당근에서 가까운 이웃과 함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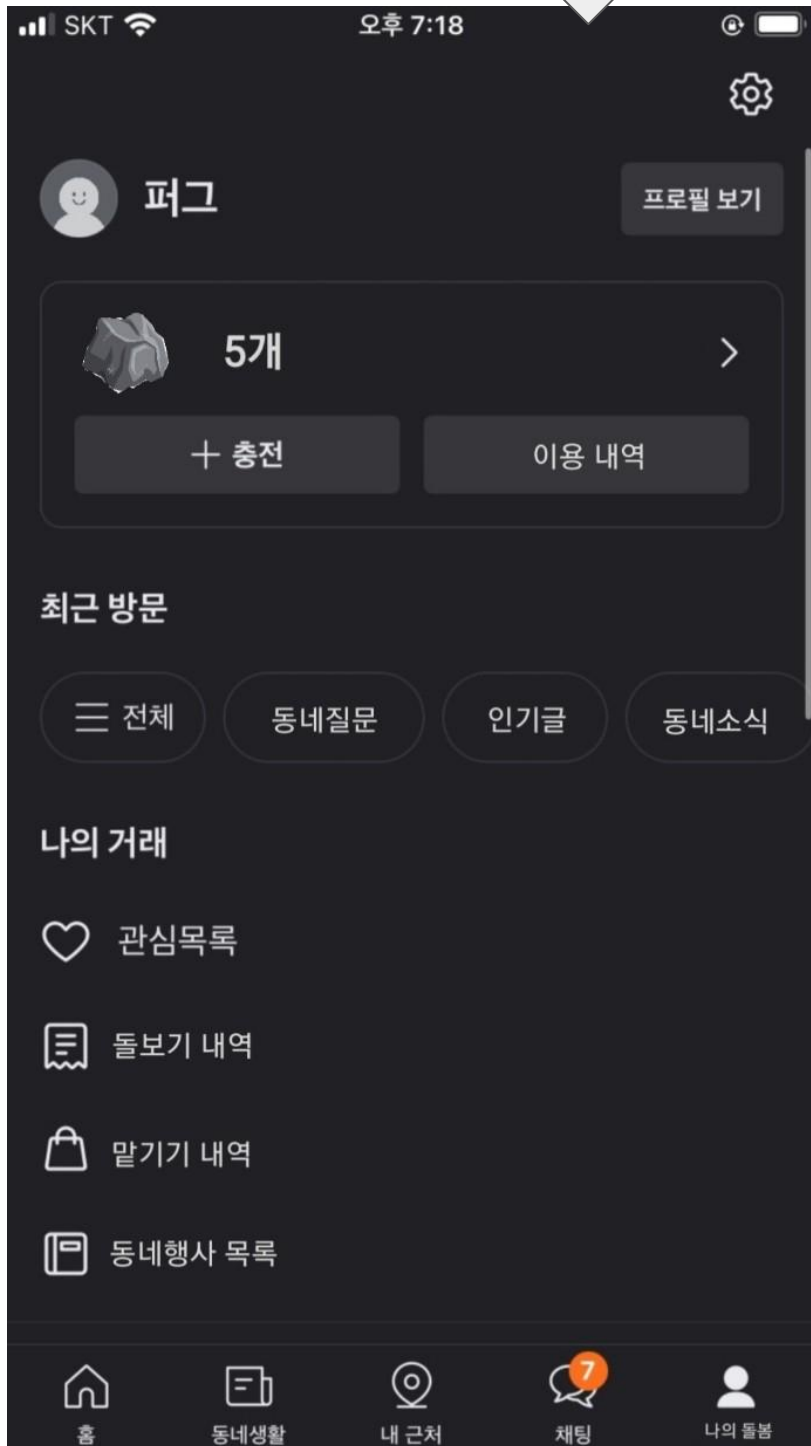




당근마켓 홈페이지. 당근은 사용자 친화적, 지역 공동체 강화, 다양한 거래가능, 안전한 거래환경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다.

20

첫번째 화면, 노형주민은 누구나 가입가능



주소지 인증으로 노형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가입시 '한라봉'으로 시작한다. '한라봉'은 아이돌보기를 제외한 맡기기, 청소하기, 나누기 등이 가능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하여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인증받아 '천혜향'을 선택할 수 있다.

'천혜향'은 아이돌봄이 가능하다.

이 공간에서 돌봄은
돌을 보는 것

돌 포인트는 첫 로그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동네행사 참여등으로 획득 가능하다.

돌 포인트는 아이 맡기기, 청소하기, 고쳐주기 등의 활동으로 교환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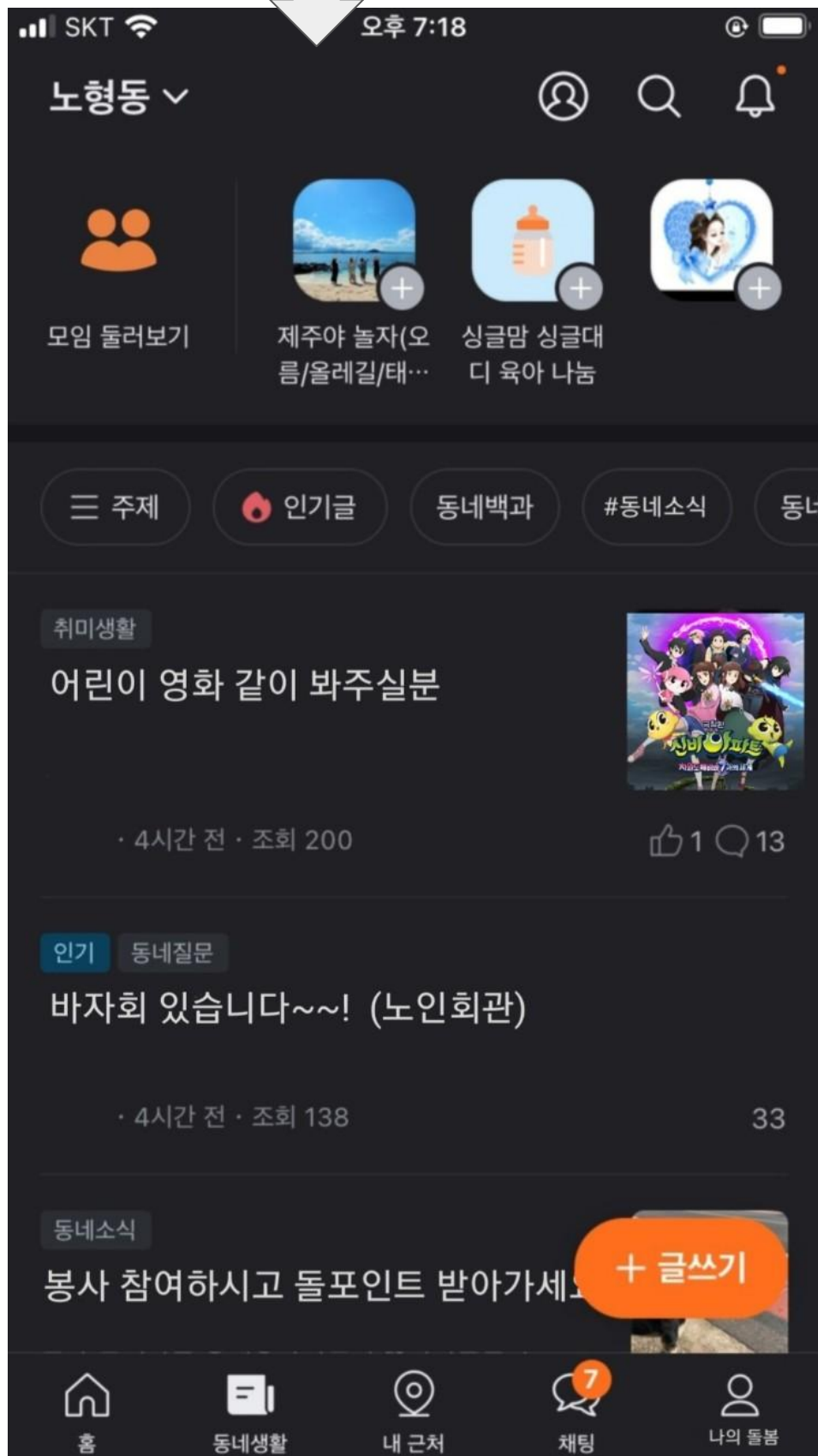
그 외에 바자회나 물품나눔에 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두번째 화면, 다양한 동네생활 정보 소통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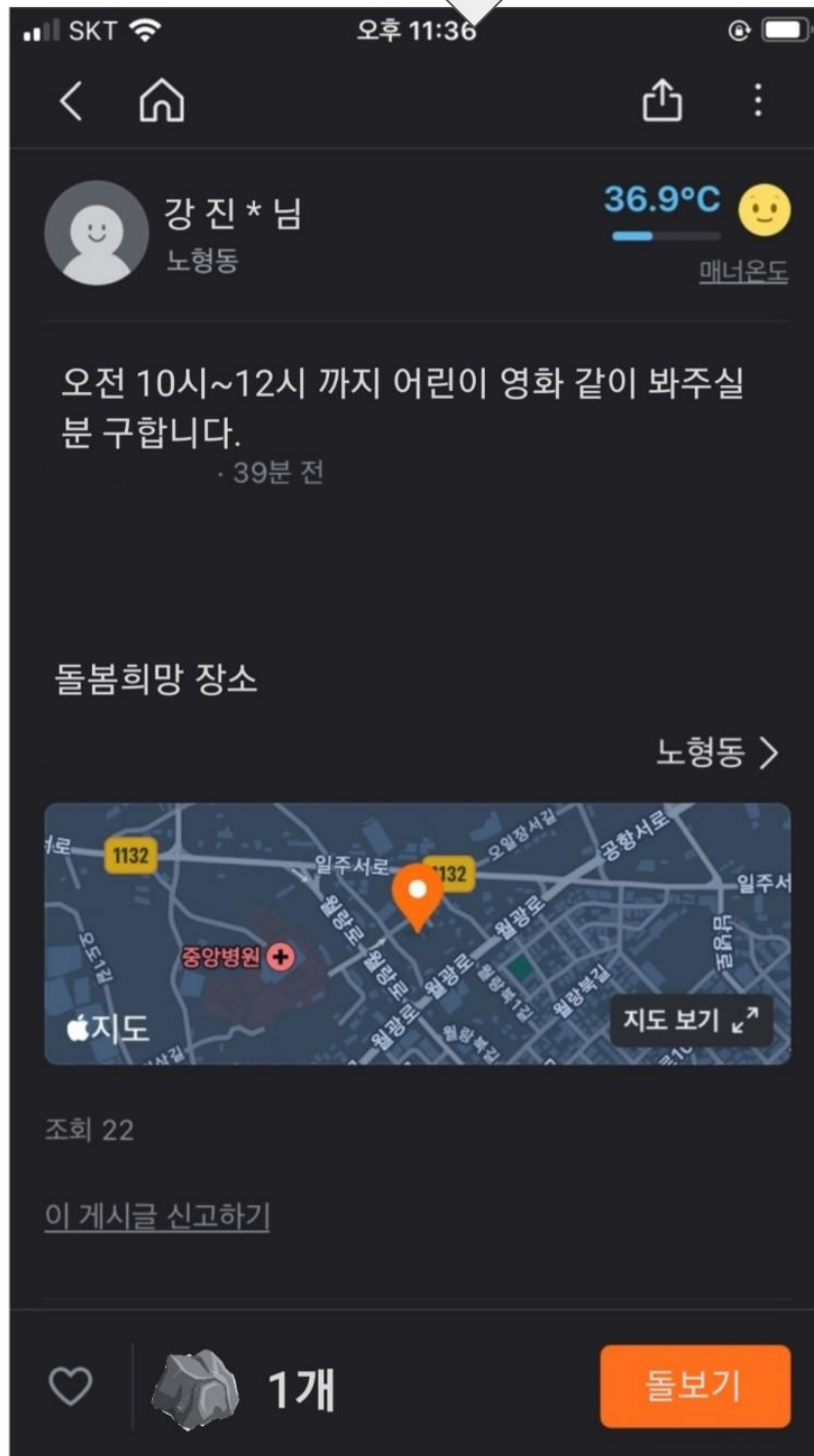
"동네생활" 화면은 커뮤니티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들이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화면의 상단에는 "모임 둘러보기" 기능이 위치한다. 이 부분은 사용자들이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모임이나 활동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모 모임, 걷기 모임, 교육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용자들은 이 기능을 통해 관심 있는 모임을 찾고, 참여 의사를 나타내거나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아래에는 동네행사와 개인적인 동네 소식 등의 게시글이 위치한다. 이 부분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다양한 행사와 소식을 사용자와 공유한다. 동네소식은 지역 축제, 시장, 공연, 체육 행사 등 지역 사회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행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 물품 교환, 도움 요청 등을 포함한 개인적인 소식을 공유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이웃들과의 정보 공유와 상호 도움을 위한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한다. 사용자들은 여기서 자신의 소식을 올리거나 다른 이웃의 소식에 댓글을 달고 소통할 수 있다.



세번째 화면, 서비스 요청자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게시물을 들어갔을 때 나오는 창이다.

게시물 상세 화면은 사용자가 특정 게시물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창이다. 이 화면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시간 및 위치 정보:

맡기기를 원하는 주민이 요청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과 위치가 상세하게 제공된다. 예를 들어, "본 게시물의 경우 10-12시 2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와 같이 구체적인 서비스 시간이 명시된다.

지도 화면:

위치 정보와 함께, 서비스가 필요한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가 화면에 표시된다. 이 지도는 사용자가 서비스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본적인 인증 정보:

게시물 작성자의 기본적인 인증 정보가 제공되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연락 방법:

"돌보기"를 원하는 사용자는 게시물 작성자와 바로 전화나 채팅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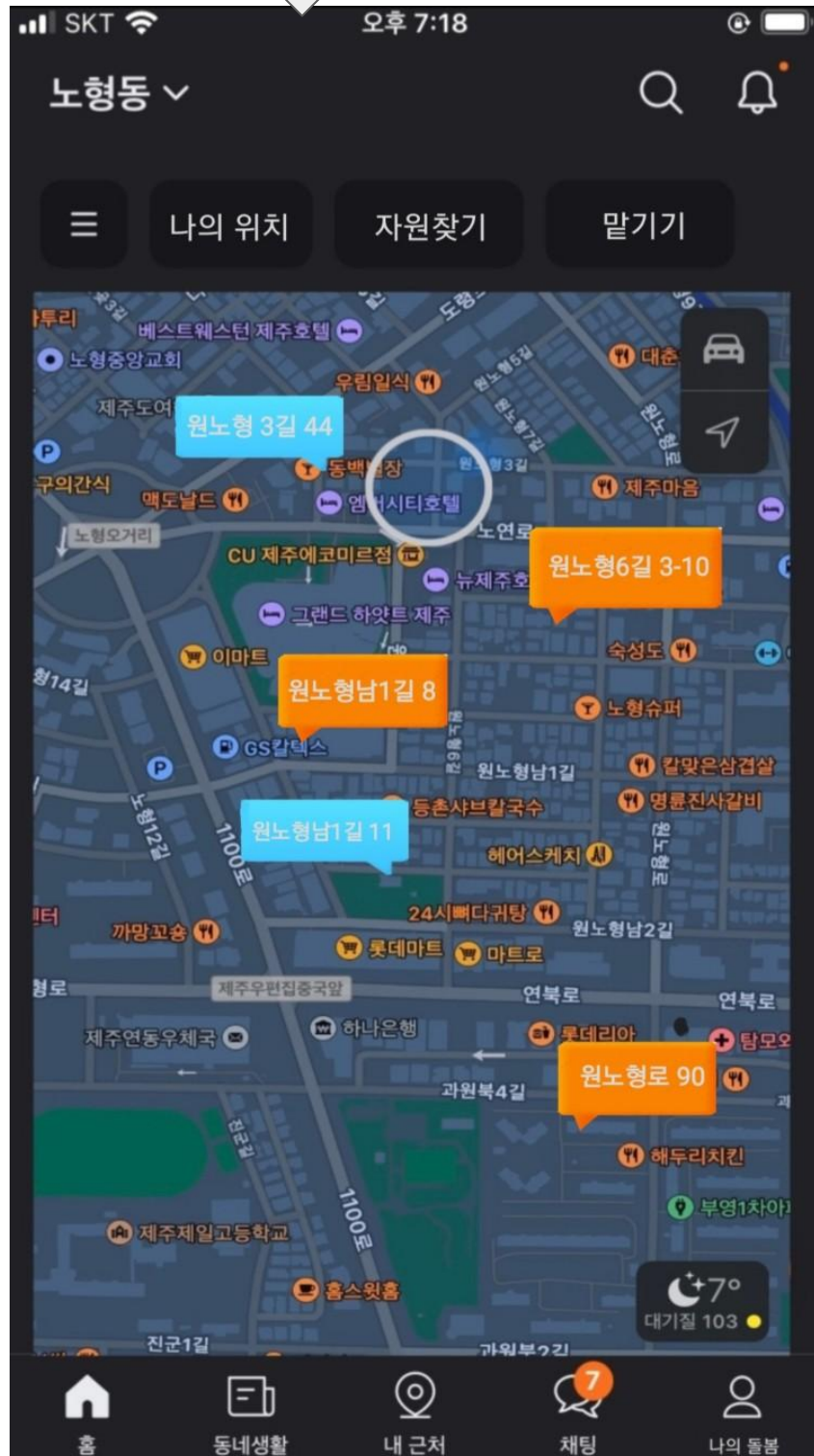
보상 정보:

게시물에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 정보도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본 게시물의 경우 10-12시 2시간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돌 포인트 1개를 얻을 수 있다."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분명하게 제시된다.

네번째 화면, 지도상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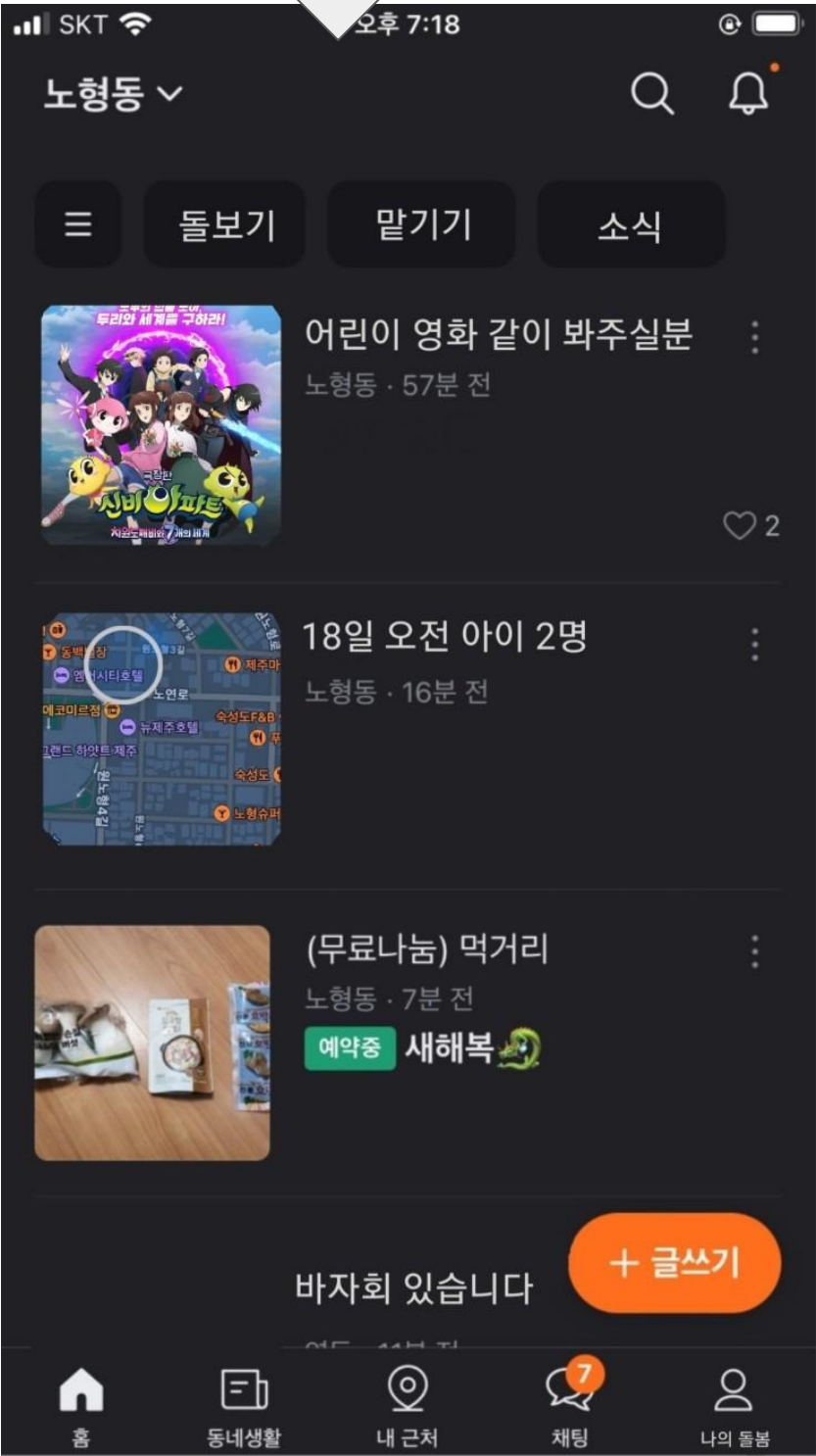
앱의 들어가 돌봄가능 버튼을 누르면 돌보미 대기상태가 된다(시간설정 가능).

화면에 사용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가 크게 표시된다. 지도는 사용자가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아동 돌봄 서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중심적인 기능이다. 사용자는 지도 위를 탐색하며 다양한 돌봄 서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는 두 개의 주요 버튼, "말기기"(주황색)와 "돌보기"(파란색)가 배치된다. "말기기" 버튼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아동을 돌보미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설정하여 돌보미를 찾을 수 있다. 추가적인 기능을 위한 탭 바가 있으며, 여기에는 "카테고리"와 "인기 검색어" 탭이 포함된다. "카테고리" 탭을 통해 사용자는 특정 연령대의 아동, 특별한 요구 사항을 가진 아동 등 다양한 필터를 적용하여 더욱 특화된 돌봄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게시글창"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중심적인 기능이다. 이 화면을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의 필요나 제안을 커뮤니티와 공유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다섯 번째 화면, 게시글



돌봄 맡기기:

이 카테고리에서는 아이, 노인, 반려동물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맡길 수 있는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아이 맡기기"의 경우에는 '천혜향'만 돌보기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돌봄 대상의 상세 정보,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 기타 특별 요청 사항 등을 포함하여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다.

도와주기:

"도와주기" 카테고리는 마을 행사 도와주기, 전구 갈아주기 등 이웃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사용자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의 유형, 가능한 시간, 연락 방법 등을 게시물에 포함하여 이웃과의 상호 도움을 촉진할 수 있다.

나누기:

"나누기" 카테고리에서는 음식 나누기, 안 쓰는 물건 나누기 등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자 하는 게시물을 올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물품을 재활용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나눔 문화를 장려할 수 있다.

함께하기:

"함께하기" 카테고리는 함께 소풍 가기, 영화 보기 등 공통의 관심사나 활동을 함께 할 이웃을 찾는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다. 사용자는 활동의 세부 사항, 날짜, 모임 장소 등을 포함하여 커뮤니티 멤버와의 교류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게시글창의 디자인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카테고리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게시물을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리빙랩의 개념과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시간과 자원이 많이 필요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향후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 인내심을 가지고, 비전을 위해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싶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나경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만약 아동돌봄 네트워크를 더 진행할 수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임지현



허지환

연구를 참여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리빙랩이라는 연구를 통해 생각의 지경을 넓힐 수 있었다. 연구 내내 쉽게 답을 낼 수 없었다. 연구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씩 해결하면서 함께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서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함께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학부생으로써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점점 해결되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고, 그만큼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다음에 이 사업을 또 한다면 무조건 또 활동하고 싶다.



강현정

나라는 사람이 더 크게 성장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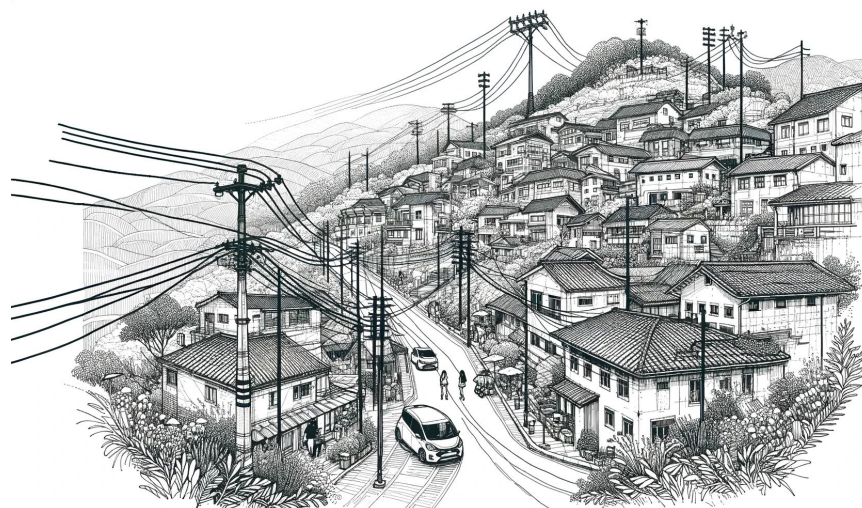
윙희정

나가며...

돌봄은 특정한 사람들만 필요로하거나 특정분야의 사람들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가 어리든 많은 누구에게나 돌봄은 필요하고 누구나 돌봄을 줄 수 있다. 학대와 방임의 예방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의 여정은 ‘당근’마켓류의 앱개발 전단계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뛰어넘은 단계들이 많지만, 함께 상상하면서 가능성을 탐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다.

사용자 사용소감, 환류를 통한 업그레이드의 반복을 거친 상태는 아니기에 정교하지 않은 투박한 모델이지만, 상상으로나마 만들어낸 돌봄네트워크의 모델은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는 온라인플랫폼형 모델로 리빙랩의 원칙을 지키면서 디지털테크놀로지를 활용해야 한다. ‘당근’마켓과 흡사한 앱으로 연결된 공동체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누구든 스스럼없이 도움을 부탁할 수 있고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편적인 마을의 돌봄공동체를 만드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기가정, 서비스 수혜대상자, 자원봉사자 등의 구분이나 등급이 없어지는 개방적 모델을 추구했다. 이를 잘만 활용하면 마을의 아이돌봄 뿐 아니라 독거어르신돌봄, 애완동물 돌봄, 식물돌봄, 자원나눔, 재능나눔 등 다양한 도구를 매개로 지역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번에는 이번에 뛰어넘었던 단계들을 제대로 밟아보고 싶다. 주민주도,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전환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생생한 과정을 거치면 전혀 다른 모델의 탄생을 체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민이 마음과 머리를 맞대면 어떤 네트워크가 탄생할까?



2023년 마을 아이돌봄 네트워크 모델개발 사업 자료집

발행: 제주지역혁신플랫폼 (RIS) 대학교육혁신본부

책임교수: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태인

진행요원: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이나경, 임지현, 허지환, 강현정, 용희정



제주한라대학교
CHEJU HALLA UNIVERSITY